

쿨루프 사업으로 냉방에너지 절감

전주시, 올해 경로당·지역아동센터·취약계층 가구 등 50여 건물 대상 추진

전주시가 어르신과 어린이,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노후화된 건물 옥상을 태양열을 반사할 수 있는 밝은 색으로 덧칠해줄기로 했다.

시는 올해 에너지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도시열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구 노후건물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쿨루프 사업(Cool Roof)'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쿨루프(Cool Roof)'는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색(흰색계열) 도료를 옥상에 시공해 지붕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으로, 별도 냉방시설 가동 없이 건물 온도를 자연적으로 3~4℃ 낮출 수 있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시는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가구 등 50여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주 지역 대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등과 연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쿨루프 사업을 함께 할 대학생 자원봉사자 50여명을 모집한 후 적정 시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전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쿨루프 사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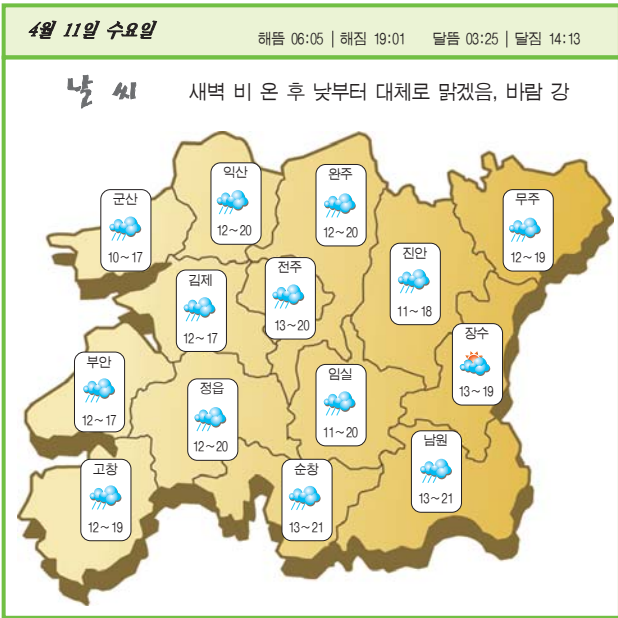
친환경 전기버스 시승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 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친환경 전기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아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에너지 걱정 없는 에너지 지킴이·안전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선언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과 전력자립률을 각각 30%와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디자인 3040' 정책을 펼쳐 오고 있다.

백순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쿨루프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도 취약계층

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의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향후 시공 전·후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점차 대상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유·초등 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 착수

전북도교육청이 유·초등 인사관리 기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순환전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 훈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교원의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도교육청은 3월부터 4월 초까지 현재의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대한 교원의 의견을 물어 개선해야 할 내용을 폭넓게 취합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현직 교원과 교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27명의 인사실무위원을 구성했다. 인사실무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위한 설문안을 마련하게 된다. 6월에 이를 도내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인사지원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이 확정된다. /이상민 기자

어린이집 원장 대상 인사 노무·노동법 교육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일 센터 교육실에서 전주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인사 노무 및 노동법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8년 노무관리 변경 내용 △인사·노무관리의 실무처리 사항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대다수 어린이집은 종일반 운영시간이 노동법 근로시간을 초과한 오전7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까지여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제, 퇴직금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자가진단과 예방 및 해결방법'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onjusc.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전북안전 매뉴얼' 앱 보급

도교육청 개발... 위험 발생시 부모에 즉시 전화연결 기능 있어

전북도교육청이 '전북안전 매뉴얼' 앱을 자체 개발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보급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대처 능력과 선생님들의 안전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에 걸쳐 이 앱을 만들었으며, 10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학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부모에게 즉시 전화가 연결되는 위험발생 알리미 서비스를 비롯해,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날씨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안전학습 자료로는 ▲전북안전 동영상(유·초·중·고별 각 10편씩 40편, 특수 5편 등 총 45편) ▲사이(4E) 좋은 안전교육(매주 월요일 자료

타재) ▲재난안전 매뉴얼 동영상(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계절별 재난, 생애주기별 재난 등 총 207편) ▲심폐소생술(영아·소아·성인용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대처법 등 총 15편) ▲안전학습 안내자료(유·초·중·고별 각 51차시 PPT수업자료, 초·중·고·특수학교 행사별 매뉴얼) ▲안전 관련 앱 모음(우리동네 대가길, 안전디딤돌, 안전신문고, 안전한 학교생활 등) ▲안전교육자료(학교안전정보센터, 국민안전방송, 안전신문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등 안전과 관련된 유용한 자료들이 대거 탑재됐다.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려면 안드로이드폰(패드 포함)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에서, 아이폰(패드 포함)은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전북안전매

뉴얼'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설치 후 설정 메뉴에서 '위험발생 알리미' 부모 전화를 등록하면 위급 상황에 버튼을 눌러 부모에게 즉시 알릴 수 있다. 관계자는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사의 안전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했다"면서 "이 앱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과 행동요령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앱 개발을 지시했던 김승환 교육감은 "이 앱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2대 가치는 '학생안전'과 '학생 개인정보 보호'였다"면서 "아이들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청소년자치문화공간 '어울누리' 개관

12일, 옛 이리남중 건물에

익산교육지원청이 오는 12일 청소년자치문화공간 '어울누리' 개관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어울누리'는 이리남중학교가 모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도심에 폐교로 남아 있던 건물을 활용한 곳으로, '청소년이 기르고 청소년이 누리는 공간 창출'을 목표로 공간 구성과 설계까지 학생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공간을 구상 초기부터 건축학교를 개최하여 화가, 건축가, 미술 교사 등 전문가그룹이 학생들과 함께 자신이 만들고 싶은 공간을 그려보고 모형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지원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청

소년 자치매우터를 만들 수 있었다. '어울누리'라는 이름 역시 '어울리고 함께 누리자'는 뜻으로, 익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얻은 결과물이다. 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의견 전달을 위해 학생들이 설계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학생과 함께 활동한 공간의 전문가들이 교육청시설담당자와 공사현장 감독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왔다. 어울누리는 영화강상실, 방송편집실, 사진스튜디오, 북카페, 실내놀이장, 공연연습실, 학생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근 운영인력을 제외한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도우미는 모두 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